경전 內 재가보살·법사 조명 연구 '눈길'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上〉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에서 11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으며, 중앙승가대에서는 1명의 박사가 나왔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유마경〉에 나타난 재가보살사상

정화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은 '〈유마경〉의 재가보살사상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마경〉은 대승불교 초기에 성립된 경전으로서 대승불교가 성립될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가불자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화 스님은 〈유마경〉의 성립과 경전의 구성, 〈유마경〉의 재가보살사상을 분석하고 유마거사의 포교방법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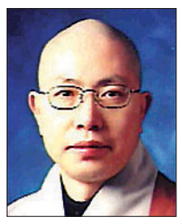
정화 스님은 유마거사의 포교 방법을 통한 현대 재가 포교 방안으로 △생애주기와 욕구를 바탕으로 포교 대상을 분류한 프로그램 개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포교 △승려들의 적극적 참여와 종단·교구본사 중심한 포교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반인들의 인생주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대상자 집단의 현재 활동범위와 사고방식과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와 대상에 맞는 포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비달마교학 인과관계 살피다

제홍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은 '아비다르마교학의 인과관계와 찰나멸 연구-〈구사론〉을 중심으로'이다.

제홍 스님은 아비달마교학 사상 중 〈구사론〉의 저자 세친(Vasubandhu)의 찰나멸설(자발적 소멸논증)과 세친 이후의 논사들에 의해 발전된 찰나론과 이를 포함한 불교논리학의 논증식에 주목했다.


정화 스님


제홍 스님


선우 스님


일문 스님

스님은 논문에서 아비달마교학에서 논의되는 인과관계를 살피고, 이들 논사들의 논증식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인과관계의 범위와 이에 관한 정의들을 논구했다. 또한 세친 이후 논사인 라뜨나까라산띠와 즈냐나슈리에 대한 논증 과정도 분석했다.

제홍 스님은 "세친 논사의 존재성으로부터의 추론은 '존재는 원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비존재화한다'는 순간적 존재성, 자발적 소멸논증으로 확립됐다. 이것은 인과론의 입장에서 존재와 본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 논사들의 논쟁방식과 당시의 논리학의 체계가 형성돼 왔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화경〉에 나타난 법사는

선우 스님(동국대 인도철학과)은 '〈법화경〉의 법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에서 다른 경전보다 법사를 중시했던 〈법화경〉의 취지와 사상을 고찰하고 현대 포교 현장의 주역들에게 법사의 이상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우 스님은 〈법화경〉의 '법사품'과 '법사공덕품'을 주요 텍스트로 법사의 개념과 위상, 이상형 등을 조명했다.

또한 출가법사, 재가법사, 템플스테이와 법사로 나누어 법사의 현대적 적용을 살핀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오랫동안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던 스님이 주목한 템플스테이와 법사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선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법화경〉의 법사에 비춰 본다면 설법자와 청법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템플스테이 법사가 된다"면서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일게일구'를 통한 '일념수희'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운영 사찰은 이 시대에 '여래사'를 탄생시키는 가장 큰 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와 참가자는 모두가 여래사가 되고 본인이 끝내 성불할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도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까규파 '마하무드라' 수행 고찰

일문 스님(동국대 선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제9대 까르마빠 왕축 도르제의 마하무드라 연구'는 티베트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까규파의 전승 법맥의 수장들과 대표 수행법인 '마하무드라'를 연구·소개하고 있다.

스님이 주목한 까르마빠는 제9대인 왕축 도르제이다. 논문에 따르면 왕축 도르제는 전 생애를 통해 괄목할 만한 위업을 남겼고, 자신도 치열한 마하무드라 수행을 한 인물이다.

마하무드라(Mahāmudrā)는 한문으로 대수인(大手印)이라 하며, 티베트어로 착갸 첸뽀(Phyag rgya chen po), 또는 착첸(phyag chen) 등으로 표기한다.

특히 일문 스님은 왕축 도르제가 저술한 〈마릭뮌쎌(Ma rig mun sel)〉을 텍스트로 그가 심화시킨 마하무드라 수행법을 살폈다.

"예비 수행과 두 가지 본 수행 지와 관, 그리고 마무리 수행으로 구성된 〈마릭뮌쎌〉은 마하무드라 수행 성취를 위한 정형화된 가르침"이라고 평가한 일문 스님은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분별 망념과 법신이 본래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념은 한국 불교의 간화선 전통에 있어서도 낯설지 않은 표현이다.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無生無滅) 청정한 자심(自心) 자리를 바로 보아 직지인심(直指人心) 하는 자리를 보여 줌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가을, 불교 공부 해볼까

9월부터 고려불교미술·초기불교 강좌 잇달아

다가오는 가을, 다양한 주제의 불교 강좌가 열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강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의 '고려의 찬란한 불교미술' 강좌다.

오는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열리는 강좌는 고려불교미술의 개요부터 불상·불화·범종·공예 등 각 분야까지 상세히 다룬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고려의 국가불교와 불교미술의 만개(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고려의 불교건축과 금동불탑의 세계(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 불탑의 성립과 고려 전반기의 석탑(소재구 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고려 후반기의 불탑과 장관의 경천사 석탑(박경식 단국대 교수) △고려의 미륵사상과 미륵불상의 전개(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고려 불국토에 울려퍼진 고려 범종의 아름다움(최응천 동국대 교수) △구도자의 간절한 염원, 수월관음도와 고려 문양의 미(고승희 前 동국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 대해 한국미술사연구소는 "찬란했던 고려 불교미술의 세계를 최고 전문가들이 쉽고도 알찬 강의로 안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 3673-3426

고려 건국 1100주년 맞아
한국미술硏 기념강좌 열어
근본불교硏 '연기법' 주제로
초기불전, 〈디가니까야〉 강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주제로 한 강좌도 진행된다. **근본불교연구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주제로 가을학기 강좌를 연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 2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중표 전남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근본불교연구회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53-5708(나루명상센터)

초기 경전을 심도 깊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초기불전연구원**은 5부 니까야 가운데 제일 처음인 〈디가 니까야〉제1권(초기불전연구원 간행)을 교재로 제9기 초기불전학림을 진행한다.

강의는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며, 강사는 각묵 스님이 맡는다. 강의 장소는 경남 김해시 보리원 내 초기불전연구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초기불전학림을 개강해 불교 만대의 뿌리요,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되는 부처님의 원음을 공부하고자 한다. 많은 법우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055)321-8579

신성민 기자

불암사 관음상·칠보사 석가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23일 지정예고…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보물 지정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교 조각과 불화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 예고 및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8월 23일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등 2건은 국보로 승격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총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사는 두벌 겹쳐 입은(이중착의법) 모습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렸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양감이 돋보인다.

특히, 17세기 대표 조각승 무염이 참여한 작품이자 정확한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17세기 중엽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년)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 유씨(장렬왕후)가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한 11존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왼쪽)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이 합작해 만든 작품으로, 조각승들의 제작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8월 21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996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년)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佛畵僧)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작품이다. 높이 3m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물감을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흰색 물감으로 그린 불화다.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하여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